

특집 [이승구 박사 은퇴]

성암 이승구 박사의 개혁신학 탐구: 개혁신학의 형성과 개혁파 조직신학

안명준 | 평택대 명예교수, 성서대 초빙교수

초록 본 논문은 이승구 박사의 학문적 공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의 개혁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영향들을 살펴보고, 그가 주장한 개혁신학의 원리와 특징들 그리고 이승구 박사의 성경신학과 조화되는 조직신학의 특징과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가 추구하는 개혁파 신학은 역사적 개혁파 전통주의 신학을 따르면서, 계시의존 사색에 근거한 개혁파 조직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충실한 바른 신학을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어 개혁신학, 조직신학, 박윤선, 로버트 레딤, 게할더스 J. 보스, 코넬리우스 반틸, 데이비드 F. 웰스, 계시의존사색, 성경신학

Keywords Reformed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Park

Yun Sun, Robert Letham, Geerhardus J. Vos, Cornelius van Til,
David F. Wells, the Revelation-relied Thinking, Biblical Theology

I. 서론

성암 이승구 박사¹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그 동안 그가 한국에 수많은 학술서적을 번역하였고, 개혁신학을² 비롯한 조직신학, 성경신학, 세계관, 문화관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관한 발표를 통하여 한국신학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학계에도 의미있는 영향과 공헌을 주었던 것에 찾을 수 있다.³ 따라서 그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많은 연구업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현재 한국신학자들과 후학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주제와 관련하여 효과적 연구를 위하여 그의 저서와 논문들 가운데 개혁신학과 관련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탐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이 연구는 그의 최종적 개혁신학의 모습이 아니며 마

¹ 이승구(Seung-Goo Lee, 李承九, 1959년 2월 1일 ~)에 대한 자세하고 전체적인 소개를 위하여 한국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이승구_\(1959년\)](https://ko.wikipedia.org/wiki/이승구_(1959년))

² 개혁신학의 시작은 츠빙글리로 부터이다. 참고로 박찬호, “츠빙글리의 개혁신학: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27권 0호 (2017): 346-377. 이승구, “개혁과 정통 신학에 대한 멀리 테제에 대한 교의학적 성찰”, 「성경과 신학」 43권 0호 (2007): 71-110.

³ Seung-Goo Lee (李承九, Korean: 이승구, February 1, 1959 ~) was select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cholars in the field of the Bible and theology in 2011. Cf. En. W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eung-Goo_Lee.

지막까지 그의 개혁신학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그의 주장처럼 잠정적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학자들이 그의 저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영국의 개혁신학자 로버트 래뎀(Robert Letham, 1947, 11월 15일 -) 교수가 2019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해 귀중한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저서를 출판하였다.⁴ 성암은 이 책에서 가장 성경적이며 개혁파적인 신학자의 진술들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20세기에 바빙크(H. Bavinck), 벌코프(L. Berkhof) 등의 정리와 비교 속에서 21세기에도 성경에 충실하고 기독교의 정통적 가르침을 더 잘 설명하는 신학자의 노력을 볼 수 있기에 추천을 한다고 하였다.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성암은 이런 작업을 한 래뎀에게 국내 학자들을 세계적 대화의 무대에로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⁵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래뎀의 책(Systematic Theology)에서 성암의 삼위일체(Trinity)와 관련한 논문이 비중있게 인용된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앞서서 성암은 2009년 세계개혁신학회 학회지인 *Journal of Reformed Theology*(E.J.Brill)에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⁶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바로 이 논문을 래뎀 교수가 자신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책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

⁴ Robert Letham, *Systematic Theology* (Wheaton: Crossway, 2019).

⁵ 이승구, “래뎀 교수님의 『조직신학』을 추천하면서”, 『합신은 말한다』 Vol. 36-2, 2021-06-15, http://htsn.kr/?page_id=4559&wr_id=620.

⁶ Seung Go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 (1) (2009): 90-107.

성암이 주장하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거라고 하며,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라고 동의를 표하면서, 하나의 삼위일체가 있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 견해는 큰 공헌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Seung Goo Lee proposes a refinement of Rahner's axiom that goes against its abuse. He writes, "The Classic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lies in asserting the following proposition without any reservation and without any condition: The ontological Trinity is the ground of being for the economic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is the ground of cognition for the ontological Trinity. Professor Lee has made an increasing contribution, provide it is clear that there is only one Trinity."⁷

래맘의 평가 이외에도 성암은 특별히 해외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하여 한국의 개혁신학자로서 그의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신학적 공헌을 보여주고 있다.⁸ 그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것들 중에

⁷ Robert Letham, *Systematic Theology*, 146. 성암의 이 논문은 현재 이 저널에 초록 검색이 2045회 텍스트 읽은 자가(Full Text Views) 311명 유료 다운이(PDF Views & Downloads) 164로 되어있다. 이 논문이외에도 10개의 논문을 이 저널에 등재되어 있다. 2023-05-25 접속. https://brill.com/view/journals/jrt/3/1/article-p90_4.xml?ebody=metrics-60553.

⁸ 그가 기고한 영어논문들과 발표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eung-Goo Lee, "The Antithesis between the Religious View of Ethics and the Rationalistic View of Ethics in Fear and Trembling,"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6: Fear and Trembling and Repetition, 101-26.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3); "A Christian Answer to the World of Violence," In *Christian Faith and Violence Vol. 2.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11 (2003): 202-26. (Eds.) Dirk

서 Brill 출판사에 나오는 세계개혁신학회 학회지 *Journal of Reformed Theology*의 자문위원(Advisory Board)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신학자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⁹

다음으로 그의 저서들에 대한 평가는 국내 학자들에게도¹⁰ 진행

van Keulen and Martien E. Brinkman (Zoetermeer: Meinema, 2003); “A Proposal for a Apostolic, Biblical, Eschatological Theology.” E. A. J. G. Van der Borcht. (Ed.) *Religion Without Ulterior Motive*, 159-78 (Leiden & Boston, Brill, 2006); “Becoming a self in Religiousness A in contrast to Becoming a Self in Religiousness B,” A Paper Presented at Kierkegaard in Asia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summer 2005, published in *Kierkegaard Studies*, Japan, 2007, available at: <http://www.kierkegaard.jp/2005/lee.html>;

“A Social Function of Coram Deo in the Thought of S. Kierkegaard.”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1/2 (2007): 153-76; “Kierkegaard’s Understanding of a Genuine Christian.” *Acta Kierkegaardiana* vol. 3: Kierkegaard and Christianity (2007):183-96.

“Christian Identity in the Korean Context.” In Eduardus Van der Borcht. (Ed.). *Christian Identity*, 373-92. SRT 16. (Leiden and Boston: Brill, 2008); “Pluralisme religieux et christianisme: Avec une reference speciale a l’interpretation du pluralisme religieux de John Hick.” *La Revue Reformee* (Marseille) 249-60/1-2 (249) (January, 2009): 87-1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1 (2009);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Imago Dei and that of the Later Reformed Theologians: A Development?” at the 10th IRTI Conference at Aix-en-Provence, France, 6-12 July, 2009; “A Biblical Theological Hermeneutics, the Pur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and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Unity of the Church: A Theological State of the Art and Beyond*, 105-10 (Leiden and Boston: Brill, 2010); “Becoming a self in Religiousness A in contrast to Becoming a Self in Religiousness B.” *Kierkegaard Studies*, No. 8, Supplementary Volume (International Conference Issue), 2010 (Kierkegaard Society, Japan, 2010); “Teaching Us Differences: Climacus’ Lesson for Comparative Philosophy.” *Acta Kierkegaardiana* 5: Kierkegaard: East and West <<imago dei>> vue par Calvin et par les theologiens reformes qui ont suivi.” *Contre vents et marées* (Interpretation, 2014): 161-85; “Calvin and Later Reformed Theologians on the Image of God.” *Unio cum Christo* 2/1 (Arl, 2016): 135-47; “The Promises and Dangers of Public Theology.” *Unio cum Christo* 6/2 (2020): 133-45.

⁹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https://brill.com/view/journals/jrt/jrt-overview.xml>.

¹⁰ 안명준, “서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시리즈 3: 위로받은 성도의 삶, 그러면 이제 우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병훈 박사가 2008년 「그말씀」에서 평가한 것을 살펴보겠다.¹¹ 그는 『전환기의 개혁신학』¹²에 대한 서평에서 성암을 17세기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에 충실한 신학자로 평가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칼빈 신학교의 게할더스 보스(프린스턴 신학교)와 안토니 후크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반틸,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리고 싱클레어 퍼거슨, 기타 다양한 학자로 로버트 레이먼드(커버넌트 신학교), 도날드 맥클라우드(스코틀랜드의 자유장로교 신학교), 로버트 레딤(런던 바이블 칼리지), 그레엄 골즈워디(호주의 무어 칼리지), 고든 스파이크맨(칼빈 대학교), 리차드 린츠(고든콘웰 신학교)등과 같은 개혁신학자들을 다루고 그들의 신학적 특성을 분별하고, 16-17세기 역사적 개혁신학과 그들을 비교한 것이 큰 신학적 공헌이었으며, ‘한국 신학을 이끌어 가는 현 세대 최고 수준의 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¹³ 결국 김병훈 박사는 성암에 대하여 올바른 정통 개혁신학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공헌하였고, 성경의

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월드뷰』 28권 9호 (통권 183호) (2015): 42-46.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251>. 안명준, “서평 우리 교회의 신학, 어디쯤 있나 <우리 이웃의 신학들>”, 『월드뷰』 27권 11호 (2014): 46-49.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037>. 필자는 성경적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신학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서평하였다. 김남식 박사는 이승구 박사의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 (서울: 살림, 2007, 2012) 대한 서평에서 반틸의 제자이며 연구가인 ‘존 프레임의 스타일을 계승’한 이승구 박사는 이 책은 한국 학자의 심도는 있는 연구서라고 평가한다. 이 책에 반틸은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신학적 활동한 점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¹¹ 김병훈, “서평 21세기 한국교회, 성경적 신학을 구축하라”, 『그말씀』, 2008, 8. http://duranno.com/moksin/gms_detail.asp?cts_id=70048.

¹²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 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동향』 (서울: 이레서원, 2008, 2판, 2016).

¹³ 김병훈, “서평 21세기 한국교회, 성경적 신학을 구축하라”.

교훈을 따른 것이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김병훈 박사의 평가는 성암을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자로 성경적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로 인정한 것이다.

박찬호 교수는 2009년 9월호 「목회와 신학」에 기고한 이승구 교수의 『사도신경』에 대한 서평에서 그의 신학에 대한 몇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로 신학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 학자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맞게 설명해보는 역할을 하는 신학자로 진술한다. 두 번째로 박 교수는 개혁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신학적 활동을 하는 개혁신학자로 평가한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신학과 신학이 있는 목회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학자로 서술한다. 이 책과 관련하여 박 교수는 교리가 가지는 실천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는 동시에 심도 깊은 신학적인 논의 또한 잊지 않고 용기있게 개혁신학의 특징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¹⁴

이런 학자들의 평가가 주는 성암의 학문적 공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1987년부터 그가 평생의 과제로 시도하고 있는 개혁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 그가 주장하는 개혁신학의 특징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개혁파 조직신학의 방법을 탐구해 본다.

¹⁴ 박찬호, “교회와 신학의 ‘아름다운 동행’: 이승구 교수의 『사도신경』에 대한 서평”, 「목회와 신학」 243권 9월호 (2009): 174-177.

II. 생애와 학문적 훈련

그는 아버지 이정훈과 어머니 조숙자 부부의 외아들로 1959년 2월 1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2월의 어느 주일날 아침에 밖에 놀러 나갔는데 마침 그때 친구 하나가 전도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남교회를 가게 되었다.¹⁵ 그때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⁶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는 남서울 교회에서 은퇴한 이철 목사에게 배웠고, 당시에 총신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정훈택 교수로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다고 한다.¹⁷ 또한 그때부터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를 읽고, 심지어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 서론을 열심히 노트 필기하면서 읽었다고 한다. 벌써 그는 사실상 학생으로 배움의 길에서 선 젊은 개혁신학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칼빈을 좋아하였고, 교회 사역들이 개혁주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개혁과 신앙적 교회의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한다.¹⁸ 이미 그는 작

¹⁵ 이승구, “이승구 교수 인터뷰”, 솔리테오글로리아교회, 2018년 6월 20일, <http://sdgchurch.kr/leeseungu-interview/>. 인터뷰를 하신 SDG개혁신앙연구회 대표이신 김병혁 목사님께서 인터뷰 본문을 신속하게 보내주셔서 글을 정확하고 쉽게 쓰게 되어 감사를 표합니다.

¹⁶ 이승구, “마 26:46-56 설교”, 언약교회, 2022-07-03. <https://www.youtube.com/watch?v=hUGhfSWnLvs>.

¹⁷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¹⁸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당시 그는 여러 책도 읽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설교와 특강을 열심히 듣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그의 지적인 성숙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타났는데 한번은 교회에 특강 강사로 온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였던 신사훈 박사가 키에르케 고르가 누구인가?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가 주저함 없이 실존주의 철학자라 대답하였더니 신사훈 박사가 매우 놀라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고등학생이 대답을 한다고

은 칼빈학자가 되고 있었다. 그는 중학교 때 벌써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때의 꿈이 실현되어 지금 조직신학 교수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1997년 서울 언약교회를 개척하여 그곳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지금도 매주 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총신대학교에 입학하여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꾸준히 신학책을 읽었으며, 김홍전 박사의 제자이며 신약신학자인 최낙재 교수와 손봉호 박사와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깊게 받았다. 손 박사의 영향으로 1982년에 학부를 졸업한 후에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에 갔지만 손 박사에게는 수업을 많이 듣지 못하였다. 그는 대학원 논문으로 1984년 “일상 윤리학과 윤리설의 가치 교육적 함의”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사가 이런 학문이 아니라서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¹⁹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당신 박윤선 박사와 최낙재 교수를 비롯하여 개혁신학과 성경신학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다. 1982년 입학한 후에 1987년 합신에서 신복윤 박사의 지도로 졸업논문인 “Cornelius Van Til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를 썼다.²⁰ 이 논문은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일은 후에 그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쓰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¹⁹ 이승구, “이승구 교수와 인터뷰”, 주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부시절, 2022년 7월 9일.

²⁰ 이승구, “이승구 교수와 인터뷰” (2022년), 주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공부시절, 2022년 7월 9일. 이승구, “Cornelius Van Til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M.Div., 합동신학교: 1987). 지도교수는 신복윤 박사로서 주로 반틸의 영어원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논문검색을 위하여 <http://www.hapdong-lib.ac.kr/thesis/T1600123.pdf>.

후에 2007년 살림출판사에서 발행한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위하여 다시 영국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다. 스코트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는 다프네 햄슨(Margaret Daphne Hampson) 교수²¹의 지도하에 1985년 “The Relation of Karl Barth’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o that of Søren Kierkegaard”로 석사학위를 받았다.²² 석사논문이 워낙 뛰어나서 에딘버러 대학교의 교수이며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편집위원인 Allan Lewis 교수로부터 박사논문으로 인정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으며, 루이스 교수가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도록 초청했지만 거절하였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는 일부러 교수들에게 허락을 맡고 청강생으로 B.A. 과정의 과목들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수강과목들을 들었던 것은 그의 학문의 세계를 넓고 깊게 만들었을 것이다.²³ 이런 신학훈련을 마치고 그는 “The Relation of Christianity to the Ethical Sphere in the Thought of Søren Kierkegaard”라는 제목으로 1990년 Ph.D. 학위를 받았다.²⁴ 이 논문 안에는 특별히 자아(the self)의 개념에

²¹ 그녀는 Oxford와 Harvard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신학을 단지 학문적으로 수행했다.

²² Seung Goo Lee, “The Relation of Karl Barth’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o that of Søren Kierkegaard” (M.Phil. diss.,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1985). 논문다운 <https://research-repository.st-andrews.ac.uk/handle/10023/13861>.

²³ 이승구 교수와 인터뷰, 주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공부시절, 2022년 7월 9일.

²⁴ Seung Goo Lee, “The Relation of Christianity to the Ethical Sphere in the Thought of Søren Kierkegaard” (Ph.D. diss.,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1990). 논문다운 <https://research-repository.st-andrews.ac.uk/handle/10023/13963>.

대하여 술라이에르마허와 바르트 그리고 헤겔과 관련된 신학적 논의와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 1990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Yale University의 Divinity School에서 포스트 닥 연구(Post-doctoral Research as a Research Fellow, 1990-1992)를 2년 간을 하면서 그 동안 자신의 학문적 훈련을 정리하고 한국교회와 신학활동을 위하여 준비를 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그의 첫 번째 중요한 신학 작업은 영국 유학시에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신학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한 후에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담』을 1992년에 출판한 것이다.²⁵ 이런 종류의 책은 영어뿐만 아니라 신학적 성숙함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영국의 다양한 신학자들에 대한 신학적 경향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III. 개혁신학의 형성

그는 대학시절부터 필립 멜란히톤, 게할더스 보스, 반틸, 헤르만 바빙크, 베르카우어, 제임스 패커, 조지 래드, 마크 놀, 레온 모리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번역하면서 해외 유명 신학자들의 학문을 일찍 수렴하였기에 그의 신학적 학술성의 깊이와 폭이 빠르게 발전되어서 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가 되었다. 그의

²⁵ 이승구,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담』(서울: 엠마오, 1992).

학문성은 데이비드 F. 웰스의 기독교론 책의 감사의 글에서, 로버트 레탐(Robert Letham) 교수와 같은 외국의 신학자들의 책에서 인정받고 있다.²⁶ 또한 그는 개혁신학연구와 더불어서 국내의 신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 1996년 한국개혁신학회 창립에도 관여하였고, 1997년 8월 28일 한국성경신학회 발족모임을 갖고 10월 29일에 창립을 주도하였다.²⁷

그는 자신의 개혁신학의 뿌리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서 찾는데,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 개혁신학이며, 종교개혁이란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²⁸ 이런 관점에서 개혁신앙이란 우리의 믿는 바를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한다. 이런 신학적 전통 위에서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칼빈(John Calvin)을 따라서 신학을 세워가는 오직 성경에 충실한 소중한 한국의 개혁신학자가 되었다. 그의 신학사상은 박윤선 박사의 성경적 정통주의 신학과 미국의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의 조직신학에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신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게할

²⁶ Robert Letham, *Systematic Theology*.

²⁷ 그리고 여러 학회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는데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교회 연합회 회장, 그리고 한국장로교 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개혁신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1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8회 신학자 우수상 수상자가 되었는데, 두 권의 저서 『사도신경』(SFC출판부)과 『인간복제, 그 위험한 도전』(예영커뮤니케이션)이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2013년 10월 12일에는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올해의 신학자”로 선정되었다. 세계개혁신학회를 비롯한 해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하여 원서로 출판되었고 수많은 영어 통역으로 신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²⁸ 이승구, “신학자, 교회개혁을 말하다 ②”, 기독교신문, 2017.02.06,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61>.

더스 보스(Geerhardus Johannes Vos)의 신학을 따라서 성경중심적-성경신학적 조직신학을 추구한다. 이런 방법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레이(John Murray) 박사에 의해서 앞서 제시되었다. 정통주의적 개혁주의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현대인들을 잘 설득하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데이비드 F. 웰스(David F. Wells)의 영향도 깊게 받았으며, 조직신학자 제임스 패커(James I. Packer),²⁹ 루이스 벨코프(Louis Berkhof, 1873년 10월 14일 ~ 1957년 5월 18일), 안토니 A. 후쿠마(Anthony Andrew Hoekema, 1913년 ~ 1988년 10월 17일)와 같은 신학자들의 영향을 통하여 그의 개혁신학의 형성을 나타낸다.³⁰ 이런 신학자들의 영향속에서 그는 개혁신학과 관련된 저서로는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전

²⁹ 성암은 존 오웬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스스로 언급한 패커를 정통과 개혁신학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곳곳에서 잘 제시한 개혁신학자로 평가한다. 성경과 권위와 무오를 주장한 패커는 그의 초기 작품 속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아주 중요시 하는데, 성경 외의 어떤 것도 우리 시대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려고 애쓴 학자라고 한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런 패커의 성경관은 성암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성경적 관점에서 신학 작업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패커는 특히 신론과 구원론에 있어 개혁신학을 잘 보여주는 신학자로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리하여 형벌을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신학의 모든 측면에서 개혁신학의 강조점을 잘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최초의 책들인 『근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J. 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London: IVP, 1958), 옥한흠 역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서울: 한국개혁주의신학회, 1973), 그리고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London: Inter-Varsity Fellowship, 1961)에서부터 이런 그의 관점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 이승구, “제임스 패커 교수를 추모하며”, 크리스천투데이, 2020-07-2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70>.

³⁰ 그가 선호하는 신학자들로는 역사적 정통 신칼빈주의자들과 더불어서 20세기에 활동한 로버트 레이몬드, 도널드 맥클라우드, 싱클레어 퍼거슨,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레엄 골드워드, 고든 스과이크맨, 그리고 리차드 린트가 있다. 참고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 동향』. 그러나 T.F. 토렌스와 같은 현대 영국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한다. 참고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답』.

환기의 개혁신학』,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개혁신학 탐구』 그리고 『툼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에서 그가 추구하는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의 신학에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살펴 본다면 그의 개혁신학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가 추구하는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좀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정암(正岩) 박윤선(Park Yun-Sun)의 영향

그는 정암(正岩)으로부터 신학적, 신앙적 그리고 목회적 요소에서 큰 감동과 영향을 받았다. 정암의 모든 신앙적 신학적 영향은 그의 설교에서, 주석작업에서, 개혁신학적 사고에서, 강의에서, 정암의 추천사에서,³¹ 그리고 정암에 대한 생애와 신학을³² 집필한 점에서 분명하고 충실하게 나타난다.

그는 학생시절부터 그의 은사 박윤선 박사로 부터 받은 영향들에 대하여 2009년 정암 신학 강좌를 기다리면서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영향과 존경을 3가지로 나타내었다. 먼저 자신이 그의 설교와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적인 축복이요 기쁨(a spiritual treat)이

³¹ 반틸의 책 『개혁신학과 현대사상』(*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을 번역 할 때 추천사를 1984년 3월에 박윤선 박사가 직접 썼다. 또한 Vos의 *The Self-Disclosure of Jesus* 『예수의 자기계시』(서울: 엠마오, 1987. 개정역. 서울: 그 나라 출판사, 2014.) 번역책에도 추천사를 썼다.

³² 그의 하나님의 주권사상, 성경 중심주의, 그리고 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일반은총에 근거한 개혁주의 문화관에서 영향을 보여준다. 이승구, “정암 박윤선 박사의 생애와 신학”, 『한국 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안명준 편집 (서울: 킹덤북스, 2020). 607-651.

었다고 고백한다.³³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정암의 설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에 여기면서 그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 정암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여 주실까 하는 것이 항상 당시 학생들의 관심이었다고 한다. 당신의 삶과 인격의 무게가 실린 스승의 설교는 항상 성경의 뜻을 더 밝혀 주셨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클로уз 업(close-up)해 주었다고 한다.

변증학과 관련하여 정암이 항상 “성경이 자증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상을 배웠다. 특히 반틸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변증학 강의에서 자주 강조하였고, 그 분을 위한 변증을 하였다고 한다. 정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존하여 생각하는 일을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³⁴이라고 표현하였다.³⁵ 칼빈주의 사상 체계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인 인격적 신으로 믿기에 계시의존사색을 한다고 한다. 이 사고는 반틸(Cornelius Van Til)과 바빙크(Herman H. Bavinck)의 이론을 소화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한다. 정암의 이런 성경중심주의는 평생 그에게 성경주석의 사명을 주었다고 한다. 그에게 배운 모든 제자들에

³³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 목사님을 기리면서”, 이승구 교수의 개혁신학과 우리사회이야기, <https://blog.daum.net/wminb/13718731>.

³⁴ 정승원, “박윤선 박사의 변증학 고찰: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 개념을 중심으로”, 『神學正論』 제22권 제2호 통권43집 (2004): 339-378.

³⁵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231.

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한다.³⁶

두 번째는 성경에 충실한 개혁신학을 배워서 개혁파적으로 목회할 것에 도전 받았다고 한다. 일사각오의 정신과 지사충성의 자세를 강조하시며 정직을 실천하는 신학의 길도 강조하셨다고 한다. 제자들이 죽기까지 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학문과 경건이 하나로 되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신학도로서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목회훈련을 하셨다고 한다. 기도를 강조한 정암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화로 목회할 것을 배웠다고 한다. “성령님의 감화 없이 목회하라는 것은 목사에게는 가장 큰 욕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강하게 기억이 난다고 한다. 개혁신학의 강조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님을 늘 연관시키면서 제시하였다고 한다. 성령님께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해 주셨다고 한다. 정암의 가르침에 의하면 개혁신학에서 성령론이 약하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 항상 성령님께 온전히 충성할 것을 가르치시는 스승은 언제나 성경에 충실하였다고 한다. 이런 성령님의 강조는 제자로서 성암(聖岩)의 성경적 조직신학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적 목회적 활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암을 따라서 개혁신학의 정신을 배운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박윤선은 교회봉사는 수종적(ministeria)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런 그의 교회론에 영향을 받았다.³⁷ 개혁신학을 가진 교역자들의 목회적 자세에서도 영향을 받

³⁶ 이승구, “정암 박윤선 박사의 생애와 신학”, 644.

³⁷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179. 정암은 현재까지 교회론에 관한 저서를 가장 많이

있다고 한다. 정암은 “진실함”과 “교역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이라는 것” 등이 강조하였는데,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특히 교역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아주 자명하게 만드셨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업 시간이나 설교에서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정암은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확신에 찬 목소리 “당신님”이라고 지칭하였다. 기도 중에서도 설교에서도 강의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독특하게 사용되던 그의 독특한 표현법이었다고 한다. 이 존칭은 정암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잘 나타내는 단어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님의 뜻을 잘 배워 알게 하옵시고, 당신님의 나라 백성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와 심지어 말버릇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³⁸ 이렇듯 정암 박윤선 박사는 제자인 성암 이승구 박사에게 신학적 목회적 첫 스승이었다. 정암은 그의 신학자 여정에서 표준이요 영혼의 생수를 먹여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였다.

2. 게할더스 J. 보스(Geerhardus Johannes Vos)의 영향

개혁과 성경신학의 아버지³⁹ 보스(1862년 3월 14일 - 1949년 8월 13일)는

집필하였다.

³⁸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 목사님을 기리면서”.

³⁹ Richard B. Gaffin Jr., “Introduction,” to Vos’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현재까지 성암의 성경적 신학적 사고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개혁신학자로 존중하고 있다. 보스를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근본적 사고를 접하고 그의 성경신학을 배우려는 열정이 일찍이 시작되었다. 보스를 향한 이런 충실한 마음이 아마도 그로 하여금 한국성경신학회를 대동하게 하였을 것이다.

보스의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가 처음으로 학부 4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보스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신학적 사고에 충실한 신약학자 최낙재 교수가 간접적으로 보스의 신학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특히 보스는 그에게 특별계시의 역사를 바라보게하는 눈을 뜨게 한 학자로서 성경 전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배웠다고 한다. 보스의 시각으로 보면 칼빈은 성경을 flat(평면적으로)하게 이해하는데 바로 이런 보스의 시각은 칼빈에게 배운 것으로 그것을 더 구체화하여 자신의 성경신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주장한다.⁴⁰ 성경신학에 대한 영향은 그가 보스의 성경신학을 1985년 번역 출판에서 나타나고⁴¹ 보스가 주장하는 특별계시의 역사(history of special revelation)로서 성경신학과 계시의 점진성(progressiveness of special revelation)에서 큰 도전을 받게되었다.⁴² 성암은 교수가 된 후에 그의 개혁신학적 성경신

Interpretation, ed., Richard B. Gaffin, Jr.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80), xiv. James T. Dennison Jr., "The Father of Reformed Biblical Theology: Geerhardus Vos (1862-1949)," <https://credomag.com/2012/09/the-father-of-reformed-biblical-theology-geerhardus-vos-1862-1949>.

⁴⁰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⁴¹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 번역 이승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개정역, 2000. 2쇄, 2011. 3쇄. 2013).

⁴² 이승구, "역자 후기", 『성경신학』, 443-444.

학적 조직신학의 작업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한다. 특별히 그는 주장한 ‘성경신학적 사유’라는 개념은 보스의 특별계시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신학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것을 탐구하는 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암은 말하기를 대개 보수적인 신앙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존중하기에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살려고 하지만, 성경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그 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계시가 주어진 방식에는 무관심하고, 의도하지 않게 성경을 무시간적으로 쉽게 다룬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들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적 사유”라고 주장한다.⁴³

그는 성경신학의 작업을 시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본문의 계시가 과연 어떤 “계시의 시기”에 주어진 것인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후대의 계시를 이 앞 시대에 집어넣어 이해하면 안된다고 한다. 오직 주어진 계시의 시기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잘 찾은 다음에 그 다음 계시가 이 계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고 한다. 그런 후에 계시가 종국적으로 밝게 드러나 신약 시대의 밝히 드러난 계시와 과연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바른 모형론(typology)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때 성경 자체에 그런

⁴³ 이승구, “성경신학적 사유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승구 교수의 개혁신학과 우리사회이야기 <https://blog.daum.net/wminb/13719347>. 참고로 「합신은 말한다」, 2021년 9월호.

시사가 있는 것을 연결시켜야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그저 같은 단어가 있다든지, 같은 색이 사용되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무시간적으로 취급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이런 그의 성경신학적 사유의 작업과 토론은 한국성경신학회에서 구약과 신약학자들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2018년 한국성경신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지「교회와 문화」의 특집호의 주제가 “21세기 성경신학의 방향: 게할더스 보스를 기념하며”를 발행했는데, 그는 권두언에서 보스가 추구했던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신학의 확장 and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박윤선 박사는 보스를 우리나라에 잘 소개시켰고, 이런 성경신학적 작업을 최낙재 교수, 박형용 교수, 한재호 교수 그리고 김성수 교수 등에 의하여 활동과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한다.⁴⁵

마지막으로 그에게 끼친 보스의 중요한 영향은 하나님 나라 사상이다. 보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매우 잘 설명한 개혁신학자라고 평가한다.⁴⁶ 그는 성경이 말하는 사상의 핵심에는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참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ia pro ecclesia)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 충실한 신학이라고 한다.

⁴⁴ 이승구, “성경신학적 사유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⁴⁵ 이승구, “성경적 성경신학과 그런 신학 하기”, 권두언, 「교회와 문화」 제 40호 겨울 (2018): 5-8.

⁴⁶ 이승구,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에 충실한 신학 작업을 지향하면서” 「한국개혁신학」 66 (2020):12-21. <https://blog.daum.net/wminb/13719329?fbclid=IwAR0xPGYofUkXoVM5t2NJPQwWot4AXAMv-BylqZxcnSziH0QIZASTVIQ8rQ>.

3.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의 영향

성암은 개혁파 변증학자 반틸(Cornelius Van Til, 1895년 5월 3일 ~ 1987년 4월 17일)에 대하여 신학교의 스승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번역과 논문과 책을 쓰면서 반틸 사상을 섭렵한 후에 진정한 성경적인 개혁파 신학자로서 증거하고 있다.

그는 반틸에 대하여 20세기의 가장 철저한 개혁신학자이자 변증학자이며, 개혁신학에 가장 충실한 신학과 변증 방법을 통하여 개혁파 변증학을 제시하였다고 한다.⁴⁷ 같은 화란 사람들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보스에게 영향을 받은 반틸을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접하였고,⁴⁸ 그 후에 현대의 다양한 신학사조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반틸 사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교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반틸의 책 『개혁신앙과 현대사상』(The Reformed Pastor & Modern Thought)을 합동신학대학원 시절 1984년 번역 출판하였는데 추천사는 반틸의 제자요 그의 전제주의 변증학에 영향을 받은 박윤선 박사가 썼다.⁴⁹ 추천의 말에서 박윤선 박사는 변증학자 반틸을 개혁신학의 대변자로 보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인본주의적 사상 체계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가장 성경적인 전제주의적(presuppositionalism) 방법(성경 전체를 진리로 받고 사색을 출발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⁵⁰ 번역원고를 마친 1983년

⁴⁷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7.

⁴⁸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 8.

⁴⁹ Van Til,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추천사.

⁵⁰ Van Til,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추천사.

성탄 전야에 쓴 역자 후기를 보면 그가 반틸의 사상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반틸과 같은 신학 작업에 정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개혁주의 변증학자 반틸은 현대주의(Modernism) 혹은 신 개신교(Neo-Protestantism, New Protestantism)는 전통적인 역사적 개신교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런 신 개신교는 하나님을 우리의 현상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인간처럼 조건화되고 상대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역자인 성암은 개혁 신앙(Reformed Faith)의 소중함을 반틸과 같은 선구자와 함께 지속적인 탐구를 하자고 주장한다.⁵¹

이런 그의 반틸의 소중함에 대한 의미있는 활동은 합동신학대학 원대학교 학생시절 조직신학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 논문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신복윤 박사의 지도로 “Cornelius Van Til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를 썼다. 이 논문은 반틸 사상에서 합리성 혹은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참다운 기독교적 인식론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반틸은 합리성이란 궁극적인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거나, 인간 정신의 궁극성과 자율성 개념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 합리성(absolute rationality)으로서 합리성의 원천(original)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파생적인, 유비적인 합리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체계 그리고 논리와는 유비적인 관계이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구속함을 입은 인간의 지

⁵¹ 이승구, 역자 후기,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313-317.

식, 체계, 논리 그리고 이성인 원칙상 참될 수가 있지만 창조주와는 차이를 전제로 가진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현대 인식론의 합리성 개념에 강한 도전을 준다고 한다.⁵²

그는 반틸을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로 본다. 보스의 성경 신학 작업에 토대를 둔 반틸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루이스 벌코프, 헤르만 방크,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이전 개혁과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입었다고 한다.⁵³ 이런 계보를 따라서 반틸을 개혁주의 변증학을 정립한 학자로서 존중하였고 반틸의 전제주의적 변증에 영향을 받았다.⁵⁴ 반틸의 이 방법은 가장 성경에 충실한 신학을 형성했다고 본다.⁵⁵ 반틸의 이 방법은 기독교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위한 유일한 기초라고 믿는 것이며, 전제주의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다른 세계관들의 결함을 드러내려고 시도한다고 한다. 반틸에 의하면 인간은 전제를 떠나서는 인간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비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중립적인 추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 방법은 그렉 L. 반센(Greg L. Bahnsen, 1948년 9월 17일 - 1995년 12월 11)⁵⁶에 의해서 대중화되었다. 이런 흐름속에서 칼빈을 따르던 개혁신학은 게할더스 보스 이어 반틸에서 그리고 박윤선 박사로 이어지면서 자신도 신학적 영향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는 반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⁵²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서울: 1995, 웨스트민스터출판부), 제10장, 217-256.

⁵³ Cornelius Van Til,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서론』, 이승구 역 (서울: CLC, 1995). 강웅산과 공역한 개정역 (서울: 크리스찬, 2009). 6.

⁵⁴ Van Til,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⁵⁵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 9.

⁵⁶ Greg L. Bahnsen, *Van Til's Apologetic* (Phillipsburg: P&R, 1998).

자(VDM : Verbum Dei Minister)로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변증한 개혁과 변증학자로 존중한다. 비록 박윤선 박사에 의해 계시의존사색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지만, 더 많은 한국 신학자들이 우리시대에 소중한 가치를 지닌 개혁과 신학자인 반틸의 사상이 좀 더 연구되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⁵⁷

4. 데이비드 F. 웰스(David Falconer Wells)의 영향

그는 현존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통주의적 개혁주의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현대인들을 잘 설득하는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데이비드 웰스(David Falconer Wells, 1939년 5월 11일-)를 거론한다. 이런 그의 신학적 영향은 그가 1991년 12월 미국 New Haven에 있으면서 원고를 마친 웰스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인데 후에 개정판 『기독론』(The Person of Christ)⁵⁸에서 나타난다. 웰스는 1992년 부활절에 쓴 한국어 번역판 서문에서 직접 이승구 박사에게 대한 영예와 감사를 표하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학적, 신학적 교류가 점증하고, 특별히 장래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하고 있다.⁵⁹

⁵⁷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 230-232.

⁵⁸ David F. Wells, *The Person of Christ*. 데이비드 F. 웰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2. 개정역. 토라, 2008. 재개정역).

⁵⁹ 데이비드 F. 웰스, “한국어판에 붙이는 서문,” 『기독론』 (서울: 토라, 2015), 5-6.

이 책의 역자 후기에서 성암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의 사역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점에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에 대한 접근을 잘 드러내는 책으로 평가한다.⁶⁰ 칼케돈 신조에 대한 이해에서 성경적이며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에 매우 충실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약의 종말론을 정확히 진술하고 그 종말론의 터 위에서 기독교론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조직신학의 다른 분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⁶¹ 또한 웰스가 아래로부터 예수의 역사성 연구(Historical Jesus)의 시도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고, 신정통주의 기독교론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위격적 연합을 강조했다라고 한다. 결국 이런 주장들을 하는 웰스는 공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술뿐만 아니라,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며, 현대의 다양한 기독교론의 문제점들을 바르게 검토한 점들, 그리고 그가 예수의 현존과 사역의 종말론적 의미에 충실한 기독교론을 강조한 점에서 개혁신학자로 평가한다.⁶²

웰스의 영향속에서 성암은 웰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는데 2020년 “데이비드 웰스의 현대 문화 분석에 대한 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⁶³ 이것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2021년에는 『데

⁶⁰ 웰즈, 『기독교론』, 377.

⁶¹ 웰즈, 『기독교론』, 378.

⁶² 이승구, “종말신학의 프롤레고메나-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성경과 신학』 제13권 (1993): 193-225. 웰즈의 기독교론의 아쉬운점도 언급하는데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조직신학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라고 한다(217).

⁶³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의 현대 문화 분석에 대한 한 논의”, 『조직신학연구』 35권 0호

이비드 웰스와 함께하는 하루』⁶⁴라는 소책자를 출판하여 그에 대한 존경과 신학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현대 사회와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한 문화 분석과 그 안에 있는 현대 교회와 현대복음주의에 대한 분석과 도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데이비드 웰스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적 문화 신학자로 말한다.⁶⁵ 저자는 웰스 교수와 같은 문화적 변증을 제대로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웰스는 반틸과 더불어서 그의 신학의 안내자로 볼 수 있다. 그는 웰스를 복음주의를 진정한 복음주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학자로 평가하면서 그 뒤로는 호튼이 개혁신학자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⁶⁶

IV. 성암과 개혁신학

그는 성경의 근거한 체계를 통하여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을 지향하는 개혁신학자이다. 또한 종교개혁적 칼빈신학의 전통에 뿌리를 둔 개혁신학자이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강조하는 성향과 종교개혁의 전통을 통하여 그의 신학의 특징들이 형성되었다. 그는 기독교의 모든 기본 개념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해 주는가를 배워야’ 하고 우리 공동체

(2020:) 26-64.

⁶⁴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하는 하루』,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⁶⁵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하는 하루』, 33.

⁶⁶ “이승구 교수 인터뷰” (2018년).

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고 한다.⁶⁷ 이런 그의 성경중심적 사상은 성경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말론과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문화관, 그리고 신학교육과 목회현장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퍼져있다. 이런 그의 성경 강조 사상은 그의 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1』 초판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요리문답을 설명하는 해설서로서 이 책을 쓰기보다는 그 문답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전 포괄적으로 강해하려는 시도와 그는 성경 본문과 성경적 주제에 대한 해석에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 확고하게 나타난다.⁶⁸ 그러므로 그의 신학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적, 성경신학적, 개혁신학적 사유의 신학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혁신학 탐구를 위한 긴 여정

개혁신학은 성암에서 있어서 평생의 과제로 삼고 탐구해 나갈 학문의 목표이다.⁶⁹ 개혁신학의 진지한 탐구를 위해 긴 여정을 떠난 학자로서 그가 1987년에 연구한 첫 작품으로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를⁷⁰ 시작

⁶⁷ 이승구, 『교회란 무엇인가?』, 16.

⁶⁸ 이승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1』 (서울: 나눔과섬김, 2011), 11.

⁶⁹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7.

⁷⁰ 신학자로 첫 저작인 이 책에서 성암은 개혁신학이라는 신학사상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인 개혁신학의 탐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작품이다. 이 책은 그의 스승인 신복윤 교수와 박형용 교수를 비롯한 모두 7분들에게 먼저 글의 검독을 의뢰하여 최종 1995년 4월 20일에 발행되었다. 아마도

으로 “개혁신학의 독특성”⁷¹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1992년에 발표하고,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2005, 2018)까지 30년 이상 관련된 주제의 저서와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성암의 개혁신학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그가 쓴 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혁신학에 대한 그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작품들이 중요하다. 몇 개의 그의 작품들을 소개하면 1987년 9월 10일 영국 출국을 앞두고 원고가 완성되어 후에 출판된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1995), 『개혁신학 탐구: 한국 개혁신학의 전망』(1999),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2005, 2018),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과 변증학의 선구자』(2007), 『전환기의 개혁신학-20세기 후반 영미 개혁신학의 동향』(2008), 『툼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2013), 『우리 이웃의 신학들』(2014), 『성경신학과 조직신학』(2018) 등이 있다. 이런 지속적인 연구속에서 그가 개혁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그가 출판하는 개혁신학탐구 시리즈 이름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논문에서 나타난다.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분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아내는 첫 딸을 출산하였고 영국으로 두 번째 출국을 5일 앞두고서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로 넘긴 날짜는 8년 후 1987년 9월 10일로 되어있다.

⁷¹ 이승구, “개혁신학의 독특성”, 『개혁신학: 라보도 박사 60회 생신 기념 논문집』(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1992), 189-237.

2. 개혁신학의 범위

그는 개혁신학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프레드 클로스터(Fred H Klooster, 1922년 12월 23일 - 2003년 12월 27일)의 의견에 따라서 칼 바르트(Karl Barth)나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오토 웨버(Otter Weber), 몰트만(Jürgen Moltman)과 같은 학자들의 신학은 그들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신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자신이 말하는 개혁신학이란 개혁파 정통주적 신학이라고 한다, 그 전통적 특성들은 성경의 정확무오성,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독력주의, 교회 조직과 예배에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⁷² 이런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로는 찰스 핫지(C. Hodge), 워필드(B. B. Warfield), 게할더스 보스, 루이스 벌코프, 코넬리우스 반틸, 그레스햄 메이천(J. G. Machen), 존 머레이, 고든 스파이크맨(G. J. Spykman), 리차드 린츠(R. Lints), 데이비드 웰스, 그리고 케빈 반후저(K. Vanhoozer)와 같은 학자들을 말한다.⁷³

3. 개혁신학의 원리

그는 개혁신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신학의 원리에 대한 충실

⁷²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6-7.

⁷³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7-8.

성이라고 한다. 이런 그의 견해는 위필드와 반틸의 개혁신학 사상에 동의하면서 개혁신학의 근본적 뼈대를 이루어간다. 또한 성암은 프레드 클로스터가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 개혁신학을 주장한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⁷⁴ *Tota scriptura*와 *sola scriptura*에 근거한 성경적 원리(scriptural principle)가 개혁신학을 개혁신학이게 하는 그 시금석(criterion)이라고 주장한 클로스터의 말을 언급한다.⁷⁵ 이것이 개혁신학의 기준이라고 한다. 위필드는 그 개혁신학의 근원적 형성원리로 가장 깊은 신의식 즉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깊은 관계의식을 주장하는데 성암은 이런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987년 5월에 쓴 작품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에서 개혁신학의 원리를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로 개혁신학의 원리(principium)에 대한 잠정적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개혁신학은 존재의 원리(principium essendi)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개혁신학은 신 중심적 신학(theocentric)이며,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전제하며, 그를 모든 다른 것의 존재 원리로 본다고 한다.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하나님이며 그의 경륜(counsel) 역시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한다.

둘째, 개혁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principium cognosendi externum)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언급한다. 개혁신학은 그 외적 인식 원리로 성경을 말하며, 신학적으로 무엇을 인식하는 그 대상이 성경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신학이라고 한다. 신학자가

⁷⁴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23.

⁷⁵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27.

신학적 지식을 얻는 유일한 원리(principium unicum)가 성경 뿐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신학의 원천(fons theoloigae)으로 항상 살아 있는 원천(a living fountain)이라고 한다. 성신께서 쓰셔서 당신을 알리시는 수단으로 이해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충실한 개혁신학은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며,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강조하고, 성경 전부(tota Scriptura)를 드러내며, 그 앞에 순종하고, 역사적 점진성에 유의하며, 그 유기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 개혁신학은 내적 인식 원리(principium cognosendi internum)를 신앙으로 여긴다. 신앙은 오직 외적 인식원리인 성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이 신앙은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다고 한다. 실천적 문제에 관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작동함을 요구하며, 이원적 사고를 극복하고 전일적 집중과 전포괄적 관심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별코프는 세가지 신학의 원리가 하나(a unity)를 이룬다고 한다.⁷⁶ 이 세가지 신학의 원리는 개혁신학의 근원적 형성 원리요, 개혁신학과 그 독특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criterion) 역할을 한다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 정경적 원칙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개혁신학을 개혁신학이게 하는 시금석으로 제시한다.⁷⁷

⁷⁶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35.

⁷⁷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135.

4. 개혁신학의 특징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암은 2005년에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서술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되는 경향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 관점⁷⁸에서 신학과 우리의 삶을 연관해서 강조하고 있다.⁷⁹ 몇 가지로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주장한다.⁸⁰

1)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가장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 개념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존재의 원리(principium essendi)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 신학적 표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let God be God) 하는 일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신학인데,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섭리해 가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점을 바르게 인정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⁷⁸ 이승구, “제2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51-88.

⁷⁹ 이승구, “종말신학의 프롤레고메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개혁신학 탐구: 한국 개혁신학의 전망』, 17-41. 이승구, 언약교회 설교, 2022년 9월 4일.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9D%B4%EC%8A%B9%EA%B5%AC+%EC%96%B8%EC%95%BD%EA%B5%90%ED%9A%BC.

⁸⁰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3-27.

2) 성경중심의 신학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은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런 추구는 개혁신학이 성경과 궁극적 조화(harmony)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참으로 유의하며, 각 부분의 가르침에 유의하면서 그 전체 사상의 통일성을 참으로 인정하는 성경 계시의 역사적 진전을 살피는 성경신학적 과제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⁸¹ 이런 견해는 신학적 사유를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시의존신학’(啓示依存神學)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계시의 존신학이란 결국 성경중심적 신학을 뜻한다고 한다. 이런 강조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이성, 경험, 전통, 역사를 신학의 궁극적 원천으로 보지 않고, 오직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내린다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 안의 정경’의 원리를 말하는 이들에 대항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전체(tota scriptura)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전체(the whole counsel of God)를 중심으로 신학적 사유를 전개하여 나간다는 것이며, 성경 신학적 태도를 가지고 신학하여 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성경중심의 신학의 강조와 더불어서 그는 개혁신학에 근거한 성경해석을 제안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항상 주어진 계시의

⁸¹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50-151.

시대적 특성을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과의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개혁파의 성경 신학적 태도는 “특별 계시의 역사적 과정”(the historical progression of the special revelation)을 중시하면서 그 틀 위에서 사고하며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다.

(1) 계시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간적으로 성경을 연결시키려는 무시간적인 해석, (2) 계시의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세대별 구원 방도의 차이를 생각하며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두 개의 하나님 백성의 도식을 아주 강하게 대조시키며 강조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3) 이른 시기에 후대의 계시를 무리하게 부과(impose)하려는 지나친 모형론적 해석 같은 것이 우리의 성경 해석에서나 설교에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²

이런 성경중심의 강조는 외적 인식의 원리(principium cognosendi externum)로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강조하는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3) 교회를 위한 개혁신학

신학을 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셔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모든 바른 신학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신학”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 “교회를 위한 신학”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학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

⁸²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9.

을 제시하는 신학이라고 한다.⁸³

참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과 그들이 있는 신학교, 그리고 참된 목회자들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땅의 교회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향해 가도록 노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정립해 나가야 할 바른 신학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적 신학이며, 성경적 신학이 아닌 신학은 바른 신학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한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헤맬 때,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시켜서 그 시대의 교회를 참으로 살리며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였듯이 잘못 형성시켜 온 사고 방식과 잘못된 신학을 성경적 신학에 근거해서 깨고, 성경적으로 바른신학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촉구했다고 한다.⁸⁴ 성암이 교회를 위한 개혁신학을 자신의 저서로 보내준 작품들은 『교회론 강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의 위로와 교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교회, 그 그리운 이름』 등이 있다. 이런 그의 학문적 활동의 실천적 적용은 그가 주도한 1981년 한국성경신학회 창립취지문에서 발견되는데, 위기속에 있는 한국 교회를 돕기위하여 성경의 바른이해를 통하여 학문적 활동의 목적으

⁸³ 그리고 개혁신학은 공교회의 신조에 가장 충실한 신학이라고 한다. 그는 이어서 “공교회의 신조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을 표현해 보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개혁신학의 태도를 반영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사도신조와 325년의 니케아 신조,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451년의 칼시돈 신조 등의 공 교회의 신조가 말하는 바에 가장 충실해 보려고 하는 신학이다.”라고 언급한다.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51-152.

⁸⁴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19-24.

로 하는 점에서 나타난다.⁸⁵

4) 신국적 신학

그는 우리의 신학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 (종말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⁶ 성경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는 개혁신학은 필연적으로 신국적 신학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개혁신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장(場)으로 본다고 한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에도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어야 했고,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의도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극치의 과정을 살피면서 신학적 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개혁신학은 근본적으로 신국적 신학이라고 한다.⁸⁷ 그는 2001년 4월 27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발표에서도 이 시대에 요청되는 신학적 작업은 사도적, 성경적, 종말 신학(apostolic, biblical, eschatological theology)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⁸⁸

⁸⁵ 한국성경신학회 학회지 「교회와 문화」 창립취지문. http://kbts.kr/html/sub1_01.html.

⁸⁶ 이승구, “종말신학의 프롤레고메나-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193-225.

⁸⁷ 이승구,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 25-27.

⁸⁸ 이승구, “서양신학을 향한 한국복음주의신학의 제언: 사도적, 성경적, 종말 신학에의 요청”, 『성경과 신학』 30권 0호 (2001): 124-150.

V. 성암의 개혁과 조직신학의 특징과 방법

1. 계시의존사색으로 바른 신학(神學)

성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神學)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scientia Dei, science of God)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생각하고 그 함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으로 본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고 있는 바 신앙이 마땅히 표현되어야 하는 바른 방식을 찾아 진술하고 그에 근거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⁸⁹

그에 따르면 신학은 잘못된 방식이 아닌 바른 신학을 따라야 하는데 계시 의존 신학 즉 개혁신학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한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데카르트에 뿌리를 둔 합리주의적 신학(rationalistic theology) 즉 카르테시안 신학(cartesian theology)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神經驗, God-experience)이나 그와 같은 종교적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 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타내 보이신 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이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계시하신 바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계시 의존

⁸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0.

사색이라고 하였고, 그런 신학을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한다. 이런 사상은 그의 은사인 박윤선 박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⁹⁰

2. 성경신학과 조화되는 조직신학

성암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이 가장 바른 성경신학과 가장 바른 조직신학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의 집필의 의도를 보여준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를 진술한 내용에서 조직신학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 주해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성경신학이 밝혀 보여 주려고 하는 특별 계시의 역사에 유의하면서 신학적 작업을 해야 하고, 성경 계시가 밝혀 주는 구속사에 유의해서 그 신학의 틀을 구속사를 중심으로 새로 구성하고, 구속사적 진전에 유의하여 언약의 역사적 발전을 주의 깊게 추적해 나가야 하며, 우리가 속한 구속사의 시기인 “종말”의 의미에 충실한 작업을 하도록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런 성경신학의 가르침을 잘 반영한다면 조직신학은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⁹¹

가장 바른 성경신학은 성경적이며 동시에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도출된 바른 교리(orthodoxy)에 충실하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며, 가장

⁹⁰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1-582.

⁹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0.

바른 조직신학도 성경적이면서 특별계시의 역사에 유의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한다.⁹² 그는 이 두 관계가 해석학적인 순환과 같으며, 서로 상호 배타적이며 경쟁적이 아닌 유기적 상호의존적(organic codependent)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조화가 잘 된다면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신학 전체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한다.⁹³

3. 성경신학에 근거한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항상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경륜을 연구하는 신학 중에서 성경과 역사의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의 작업 속에서 항상 성경적이며, 성경주해에 근거한 성경에 일치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⁹⁴

조직신학의 역할을 몇 가지를 제시한다. 설교와 가르침이 기독교의 신념 전반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역사적 전통 가운데서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보존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제거하여 교회를 항상 개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교회가 직면한 새

⁹²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10.

⁹³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1.

⁹⁴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3.

로운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⁹⁵

그는 조직신학의 지향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좀더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신학적 개념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매우 많다고 한다. 둘째로는 성경과 성경적 전통에 충실할 것이 요구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고의적으로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성경과 성경적 전통을 벗어 나아가는 일이 많다고 한다. 셋째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성경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적 입장을 주장할 것을 말한다.⁹⁶

4. 개혁파 조직신학의 특징

성암은 그의 개혁신학의 원리와 특성에 따라서 개혁파 조직신학을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철저히 의존하는 개혁파 조직신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로, 개혁파 조직신학은 성경에 충실한 조직신학이라고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으로 주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성경에 충실한 작업을 하여 가는

⁹⁵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6.

⁹⁶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8.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은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의 하나이며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그 과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잘 변증하는 것이 19세기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근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참으로 충실하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답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정확 무오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로 수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성경을 계시답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성경의 계시적 구조, 즉 계시사적인 진전을 존중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며, 그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사에 주의하면서 해석하여 신학적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⁹⁷

둘째로, 성경의 내용과 그 계시가 주어지는 형식에도 충실하려고 하는 개혁파 신학은 결과적으로 공교회의 신조들에 매우 충실한 신학이라고 한다. 공교회의 신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전 시대의 책임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성경에 충실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한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개혁파 조직신학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세돈 정의에 표현된 고전적 삼위일체론과 그리

⁹⁷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5.

스도의 양성론에 매우 충실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펠라기우스주의의 주장에 반(反)하는 어거스틴주의적 은혜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은혜론을 반-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로 제시한 천주교의 사상적 왜곡에 반(反)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와 그에 따라 나오는 성화를 강조하는 개혁파 교부들의 주장에 철저히 동의하는 것이라고 한다.⁹⁸

셋째로, 개혁파 조직신학은 언약 신학적 신학이라고 한다. 개혁파 조직신학은 모든 주장의 토대가 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언약 신학적 구조를 찾아내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언약 신학이라고 한다. 이는 신학사적으로 언약 신학을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신경 쓰며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과 동시에 성경 안에 언약이 진전해 가는 역사가 있다는 언약 신학적 주장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파 조직신학은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은혜 언약의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구조임을 생각하면서 은혜 언약의 진전 과정을 중요시 한다고 한다.

넷째로, 개혁파 조직신학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한다. 모든 언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개혁 신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天國神學)이라고 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개념임을 생각하면 이는 또한 종말 신학이라고 한다. 개혁파 조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온, 그러나 그

⁹⁸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5-586.

리스도의 재림에서야 마침내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증시(證示)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한다.

다양한 복음주의 노선의 신학들과 비교하여 개혁파 조직신학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성경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신학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큰 차이점은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구속론, 참 신자의 견인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더 철저한 구원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알미니안적 복음주의와 구별되고, 유아세례를 성경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침례교적 복음주의와는 구별되며, 모든 장로는 감독이라는 입장을 성경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성공회 안의 복음주의나 감리교 안의 복음주의와는 구별된다고 한다.⁹⁹

5. 개혁파 조직신학의 방법

성암에 따르면 조직신학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계시의존적으로 전개된다면 성경에 합당한 조직신학 방법으로 인정한다. 정통적 개혁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기본적인 신조인 사도 신

⁹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6-587.

경이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세돈 정의를 설명하는 방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등을 잘 설명하는 신조 강해식 방법,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삼위일체적 방법(the Trinitarian Method),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하는 방식, 이와 연관된 구속사적 접근 방식,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다.¹⁰⁰

성암은 벌코프의 조직신학에서도 나타나는 전통적인 종합적 방법(the synthetic method)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과 관련하여 논의 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논의(theology proper)로부터 인간과 죄 문제(anthropology)를 다루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논의하고(Christology),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논의(soteriology)한 후,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ecclesiology), 마지막에 종말의 문제(eschatology)를 다루는 방식으로 마친다. 그러나 성암은 위의 방법은 신학의 통일성을 드러낼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조직신학이 항상 이런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이해에 대해 경고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신조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진 방법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성령론이라는 이름이 확보되어 종합적 방법에서 이미 다

¹⁰⁰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78.

루어진 성령의 사역이 무시된다는 공연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고, 십계명을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조직신학은 계시 의존적이기만 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고 한다.¹⁰¹

이들 과목 외에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시된 교리를 변증하는 방법과 태도를 다루는 <변증학>(apologetics), 교리의 형성 과정을 다루고 그 내적 연관성을 생각하는 <교리사>(the History of the Doctrines) 등등의 조직신학의 모든 하위 과목을 다룰 때도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이며,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계시의 틀까지도 존중하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¹⁰²

6. 개혁파 조직신학이 극복해야 할 작업들

위에서 제시한 계시 의존 신학인 정통과 정통신학과는 달리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왜곡하여 참된 기독교 신학(genuine Christian theology)을 벗어난 신학들이 많이 시도되었다고 한다.¹⁰³ 과거의 신실한 개혁 신학자들은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의 신학을 제시하는 작업에 더하여 다른 신학적 작업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역할도 감당해 왔기에,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입장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¹⁰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8.

¹⁰²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9.

¹⁰³ 이승구, “서양신학을 향한 한국복음주의신학의 제언: 사도적, 성경적, 종말 신학에의 요청”, 126.

신학적 작업들도 잘 알고, 그것을 비판하는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¹⁰⁴

오늘날의 조직신학은 구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성경보다 더 근원적인 구조를 도입하여 수정주의적 특성의 신학적 작업을 하는 칼 바르트와 그와 유사한 입장에서 신학을 하는 이들¹⁰⁵, 이와 관련하여 문화-언어학적 종종 후기 자유주의(post-liberalis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사람들, 그와 연관된 소위 “서사적 신학”(narrative theology)자들, 고전적 자유주의를 보강하면서 더 급진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인종적 차별에서의 해방을 주장하는 흑인 신학, 성적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신학(feminist theology), 남미 해방 신학의 전통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 그리고 모든 신학은 다 국지적 주제에 충실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려고 해야 한다는 지역 신학들(local theologies, African theologies, Asian theologies, South African theologies 등), 그리고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원하는 환경 신학(eco-theology) 등의 새로운 신학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¹⁰⁶ 그는 이런 신학들에 대한 책임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자들에 대한 신학적 비평으로 주변들의 신학에 관한 책을 발행하였다.¹⁰⁷ 이 책에서 성암은 이들의 신학은 상당히 매력적으

¹⁰⁴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9.

¹⁰⁵ 이승구, “서양신학을 향한 한국복음주의신학의 제언: 사도적, 성경적, 종말 신학에의 요청”, 127.

¹⁰⁶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89-590.

¹⁰⁷ 이승구, 『우리 이웃의 신학들』(서울: 나눔과 섬김, 2014. 2판, 2015).

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성경적 검토를 통하여 올바른 개혁파적 성경신학의 길과 개혁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¹⁰⁸ 이런 주장은 그의 성경신학적 개혁과 신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신학들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 시대의 신학이 좀더 성경적 신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신학이 우리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대답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 오늘 우리 시대가 묻는 질문에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의 대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들 때문에 성경적 관점을 상대화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우리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으로 성경에 충실한 대답을 하는 성경적이고 계시 의존적인 신학적 작업이 우리의 과제가 되도록 주장한다.¹⁰⁹

VI. 결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후에 신학자가 된 성암이 어떻게 개혁신학자가 되었는지 그 형성과정 그리고 그가 말하는 개혁신학의 원리와 특징들 그리고 개혁파 조직신학의 방법과 과제를 살펴 보았다. 그는 성경적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개혁파 신학자로서 많은 저

¹⁰⁸ 안명준, “서평 우리 교회의 신학, 어디쯤 있나 <우리 이웃의 신학들>”, 46-49.

¹⁰⁹ 이승구,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590.

술과 번역 그리고 학회, 교회, 신학교에서 활동을 통하여 우리시대의 신학자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신학의 내용은 학문적인 가치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외치는 개혁신학이다. 그는 교회론에 관한 여러 편에서 저서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신학을 통하여 올바른 목회의 모범을 보이는 말씀의 종으로서 목회자이다. 이런 그의 활동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신학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의 개혁신학적 성경신학적 접근은 다음세대에 소중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성이나 과학이 아닌 오직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연구한 모든 것들을 탐구하여 진정한 가치를 지닌 성경적 개혁신학의 내용과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기다리게 한다.